

고흥에 '육군 드론봇협력사무소' 들어선다

전남도-육군 차세대 드론산업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드론산업 1번지 교두보·군 시장 확보 외부기업 유인책 마련

고흥에 전남도와 육군 교육사령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드론산업을 위한 '육군 드론봇협력사무소'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4일 "지난 2일 육군 교육사령부와 차세대 드론 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차세대 드론산업 1번지로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은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송귀근 고흥군수, 박상근 육군 교육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차세대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전남도와 드론봇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첨단과학군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매진하는 육군 교육사령부(드론봇 전투발전센터) 간 상호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고흥에 '육군 드론봇 협력사무소' 설치·운영 ▲다양한 행사 공동개최 및 상호교류 협력 ▲방호·재난 특수목적 드론 및 운영 매뉴얼 공동개발·실증 협력 ▲기타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드론봇 협력사무소 설치, 드론봇 켈린지대회 공동 개최, 각종 기술개발·실증사업 추진 협력,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연 2회) 등에 나선다.

전남도는 최근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개발, 433MHz 통신 기반 비가시권 장거리 무인기 기술 개발 등 다수의 국비 사

업을 확보했다. 또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테스트베드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비롯한 각종 국가 공모사업을 석권하는 등 '차세대 드론산업 1번지 전남'이라는 타이틀이 전국에 각

인되고 있다. 교육사령부는 2018년 창설된 드론봇 군사연구센터를 최근 드론봇 전투발전센터로 확대·개편, 민·관·산·연 전문가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기술 소요장출 및 제안 등 육군을 첨단과학 기술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민간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국방 혁신을 조기에 실현하고, 전남도는 최대 수요처인 군 시장을 확보해 도내 기업 역량을

높이고, 외부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스마트 무연혁신을 기조로 '드론봇 전투체계 및 AI 해안통합 감시체계'를 도입해 광활한 지역에 대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코자 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도 5월께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와 고흥군, 육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2일 대전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송귀근 고흥군수, 박상근 육군 교육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에 '육군 드론봇 협력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4500억 농업 공익직불금 전남도, 5월 말까지 접수

전남도가 올해 4500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요건은 두 가지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작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며, 농업법인은 5만㎡ 이상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한 공익직불금은 대량 검증, 이행 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도는 공익직불금으로 19만여 농가에 4472억원을 지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전남도, 5일~26일까지

전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 516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5일부터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산정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전남도와 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기에 의견이 있으면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총 60여 종의 행정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더욱 적정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도민들께서 재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도 중 1위 코로나19 상황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톡톡'

광주시는 올해 목표액 중 1분기에 신속집행 부문에서 2조199억원(35%)을 집행했으며,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1분기 목표액 4228억원에서 32%(5586억원) 초과 달성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초과 달성은 코

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분기 경제적 파급력이 큰 소비투자 부문의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매주 실국별 협업

팀(T/F)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체계적 예산집행과 관리, 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신속집행 지원단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기업 지원 강화

5개 팀 22명 투자유치단 운영

전남도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투자유치와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혁신도시 투자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혁신도시지원단은 나주시, 이전 공공기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연구원(식품산업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5개 팀 22명의 '투자 유치단(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별로 유치활동을 정보·통신기업, 농식품 기업, 문화·예술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매달 각 200만원 한도로 임대료 또는 금융권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다. 올해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신청에 대한 사업자의 조기 창업과 개업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민원처리 신속처리반(TF)' 운영도 준비 중이다. 올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아파트형 공장인 '지

식산업센터'가 완공돼 분양 중이다. 현재 750여 개의 사무실과 점포가 분양을 마쳐 이달 중 한꺼번에 입주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지식산업센터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주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주시와 협의해 입주 자격 확인 기간을 단축, 최대한 짧은 기간에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입주 승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누리집(<http://innocity.bitgar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